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47/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저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절뚝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A]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길뜰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B]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홀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 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리'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모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a의 '체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b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늪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c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d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e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